

‘1조원 투자’ 성환중축장 함평 이전 진통

지역 주민 “생존권·주거권 박탈” 유치 계획 철회 요구
함평군 “이주민 생활안전대책 최우선 고려돼야” 주장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함평군 신광면 송사리 일대 이전을 두고 지역 주민들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3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과 전남도는 축산자원개발부 유치를 통해 국토균형발전, 지역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 등 복합적인 축산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이 9000억원으로 추정되며 도로개설, 수자원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까지 포함하면 총 1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 곳 송사리를 포함 일대 주민

들은 “축산자원개발부 유치는 농업을 전직으로 살아가는 신광면 송사리 일대 주민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또한 삶의 터전을 박탈하는 처사다”며 “조상대대로 살아온 이곳에 축산자원개발부 유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윤형 함평군수도 최근 열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이하 성환중축장) 이전 관계자 면담에서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으로 함평군민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주민 배려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협상을 진행하자는 협상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윤형 함평군수, 박범영 축산자원개발부장, 배운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 등 관

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면담에서는 성환중축장 이전과 관련한 공통 관심 사항을 논의했다.

축산자원개발부 측 관계자는 “성환중축장이 함평에 이전되면 함평은 물론 전남 축산업의 위상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며 “또 지역에 2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이주민 생활안전대책 등 이주민에 대한 지원은 성환중축장 이전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며 “이주민 지원정책을 기반으로 각종 SOC 사업 유치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함평군과 축산자원개발부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 보자”고 답했다.

이처럼 성환중축장 이전과 관련 함평군과 축산자원개발부가 축산업과 지역 발전을 유도할 것이란 데에는 큰 틀에서 공감

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협상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함평군은 지난해 말 성환중축장 이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축산자원개발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3월 중에 MOU를 정식으로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함평군 관계자는 “송사리 일대는 임차농들이 많아 다소 주민반대가 있다”며 “협상이 잘 마무리 돼 이전이 최종 확정되면 일자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도로등 각종 SOC 사업 구축에 따른 편익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는 신광면 송사리 일대 612ha 부지에 가축개량평가·낙농·양돈·초지사료 등 4개 부서와 중축을 짓고 300마리, 돼지 1000마리가 들어오게 된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깨끗한 조합장 뽑자”

함평경찰·주민 등 참여
공정선거 홍보 캠페인

함평경찰서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최근 함평5일시장 등에서 함평군선관위, 농협직원, 지역 언론사 관계자, 지역민 등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 선거 실현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조합장 선거는 선거기간이 짧아 조직을 이용한 금품살포, 식사제공,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등 선거부정행태가 우려된다”며 “유관기관, 지역언론과 함께 조합장 선거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 감시하겠다”고 결의했다.

류미진 함평경찰서장은 “이번 조합장 선거가 공정선거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금품, 식사제공 등 부정선거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함평경찰서와 농협 관계자들이 함평 5일시장 등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실현을 위한 캠페인을 열었다.

〈함평경찰서 제공〉

지역주민 반발 ‘기업형 돈사’ 신축 무산

J영농조합법인, 건축허가 취하서 무안군에 제출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던 무안 J영농조합의 대규모 기업형 돈사 신축이 철회됐다.

3일 무안군에 따르면 J영농조합법인은 최근 군정에 지난 2017년 신청한 돈사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취하서를 제출했다.

J영농조합법인은 건축허가 신청 취하

이유로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J영농조합법인의 돈사 신축 민원은 지난해부터 예정지와 인접한 마을 주민은 물론 사찰의 스님·신도들까지 나서 반대운동을 지속되고 있다.

또 전남지역 최대 양돈농가로 J영농조

합법인의 모회사인 S축산의 환경면 측에서 발생한 분뇨가 바다로 방류된 사실이 최근 알려진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주민들은 “돈사가 들어서면 악취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돼지 8만여두를 사육하고 있는 대규모 농장이 10만두를 채울려 하기 보다는 기존 돈사의 주민피해 최소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에 왔다.

J영농조합법인이 무안군에 신청한 돈사 규모는 무안읍 성암리 2만6843㎡이다. 이곳에는 1만4000두를 사육할 수 있는 돈사 3동과 관리실, 소독실 등 8동의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한편, 무안군의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는 J영농조합이 돈사신축 허가를 신청할 당시 제한된 거리 규정은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과 2km 이내였으나 이후 500m로 강화됐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



사회적 기업 ‘톤레샵 협동조합’ 영광 대마면에 새 공장

사회적기업인 ‘톤레샵 협동조합’이 영광 대마면에 신축공장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준성 영광군수,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지역 기관·사회 단체장 및 다문화 가족 배우자, 결혼이주여성 등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사진〉

이 자리에서 톤레샵협동조합은 캄보디아 등 이주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공장 신축에 도움을 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앞서 한빛원전은 톤레샵협동조합에 가

공공장 건축비 3억5000만원 중 2억원을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지원했다.

이에 따라 톤레샵협동조합은 새 공장에서 영광 찰보리빵과 모싯잎 송편, 영광 홍시 등을 생산한다.

또 장애인 2명과 이주여성 8명을 추가로 고용할 예정이다.

석기영 한빛원전 본부장은 “사회적기업의 소득증대와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 제인 일자리창출에 부응하고, 침체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영광군, 3·1운동 기념 ‘얼씨구나 꽃가람’ 공연

영광군은 7일 오후 7시 영광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얼씨구나 꽃가람’을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3·1운동 100주년 기념공연으로 영광군민들의 전통음악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예술인들로 구성된 전통소리연구와 창작공연작품 연구를 하는 국악그룹 꽃가람이 우리 고유의 가락과 무용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민요무(舞)’와 3·1절

운동을 기념하는 판소리 ‘열사가’, 비나리, 남도민요 등을 펼친다.

이와 함께 전인삼, 채수정 명창의 구성지고 흥겨운 판소리로 관객들을 흥시키는 전통국악공연으로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영광군 관계자는 “싱글러운 꽃가람이 터지는 새봄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여 전통국악의 매력에 빠져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농업인 영농 확대·노후 안정에 181억원

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 농지은행사업비 확보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가 2019년 농지은행사업비 181억원을 확보해 농업인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농지은행사업은 청년 창업농, 2030세대 등 농업인을 위한 영농규모 확대사업과 고령·은퇴농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사업별로는 청년창업농, 2030세대 등의 영농규모 확대를 위한 농지매매 및 임대차사업 43억원, 과원규모화사업 4억원, 농지가격 및 쌀값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용 농지매매사업 61억원,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는 경

영회생지원사업 50억원을 지원한다.

또 영농은퇴자의 소득보전을 위한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14억원,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농지연금사업 9억원을 지원해 고령농업인이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지은행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061-260-5531, 061-260-5521~22)로 문의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목포시 후광대로 114)를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1686.50㎡(510평) 건물:3,000.80㎡(907.74평)
지상2층 매매가:38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 (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55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136.20㎡(41.20평) 건물:265.58㎡(80.3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15억 문화전당역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하남동 (준주거지역)
토지:979.70㎡(296.36평) 건물:1928.89㎡(583.49평)
지상4층 매매가:65억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상권최상, 전시효과최상
- ★ [서구]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434.44㎡(131.4평) 건물: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55억 이마트인근, 상권최상, 전시효과최상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5700㎡(1700평) 건물:6500㎡(1900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120억
건물2동, 신법적용 350베드 가능
요양원 40베드 별도, 주차장넓음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토지:5,385㎡(1629평) 매매가:60억
투자 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분할가능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64억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 ★ [토지]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15,953㎡(4825평) 매매가:12억1천만
자연취락지구, 10m도로접
- ★ [토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